

농어촌공 경주시사, 고령농 생활 안정 '힘'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는 오는 2024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최대 10년)하는 제도이다.

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에 활

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오는 2024년 1월 1일 현재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1945년 1월 1일~1959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 지급 요건,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지원단가, 지급상한 면적, 가입 연령별 지급 기한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시사(054-772-999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삼진 기자 wba112@daum.net